

주임신부: 김대하(사도 요한)
본당회장: 조우호(바오로)
TEL : (905) 545-3004
FAX : (905) 545-7895

연중 시기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요한 6, 11)

미사 시간

미 사	주일 11:30(본당)
	주일 17:30(공소)
평 일	매 주 (화) 20:00
	매월 첫 (금) 19:30
성모 신심	매월 첫 (토) 11:00
성시간	매월 첫 (금) 20:00

성사 일정

고해성사	미사 전, 후
견진성사	2 년에 1 회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혼인성사	6 개월 전 면담
병자성사	병환 중/임종 전

교리 시간

예비자 교리	온 라인
견진 교리	

신심 단체

자비의 모후 Cu	매월 2 주 미사 후
셋별 Pr.	매주 주일 10 시
평화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8:30
천상의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1:00
사랑하올 어머니 Pr.	매주 화요일 18:50
바뇨 성모 기도회	매월 1,3 주 (토) 10:00
울뜨레아	매월 1 주(금) 성시간 후



현 참여 가구 수: 45가구 (지난 주 누계: 45가구)
총 약정액: \$110,000 현 모금액: \$86,409 (78.5%)

One Heart One Soul 은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교구 사이트 (<https://www.oneheartonesoul.ca/give>) 참조 바랍니다.
※주소 변경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김성수(베드로) 형제에게 문의 바랍니다.

본당 소식
◎전례 안내
▶7/28(일) 연중 제 17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7/23 ~ 8/17 (토) 본당 신부님 휴가 기간중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8/ 4(일) 연중 제 18 주일 (본당 11:30, 공소 17:30)

◎본당 신부님 하계 휴가 일정
▶7/22(월) ~ 8/17(토)
다음 주 주일 미사(7/28)만 본당 신부님과 함께 합니다.
신부님 휴가 기간동안에는 최성욱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온타리오 한인 성당 골프 대회 일정

주최	일시및 장소	참가비
토론토 한인 성당 박상재 빈첸시오 (416.882.8385)	8/12(월) 11:30 Station Creek	\$160 (그린피+파워카트+석식)
캐나다 한인 꾸르실료 (문의: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8/17(토) 13:30 Glen Eagle G.C.	\$140 (그린피+ 파워카트 + 중, 석식 + 선물)

◎성모회 마늘 판매
▪ 10LB(Large) 80 볼 / (Medium) 75 볼
주문은 각 구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반드시 집으로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최토마스 형제님 부고
• 장례미사장소 : 예수성심 성당
(296 Judson St, Etobicoke, ON M8Z 5T6)
• 날짜 : 7 월 30 일 (화요일)
o 08:30 : Visitation
o 09:00 : Litany (연도)
o 10:00 : Funeral Mass
o 미사 후 : 장지 하관예절
위치 : Trafalgar Lawn Cemetery
(1149 Dundas St W, Oakville, ON L6M 4L8)
※장지하관 예절 후 Burlington Mandarin (주소 : 1881 Fairview St, Burlington, ON L7S 2K4) 에서 같이 식사를 해 주심사 고인께서 부탁을 하셨으니 뜻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 소식
▶ 금일 간식은 송인순 에밀리아 자매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 7 월 공소 축일자. 축하합니다.
7/ 1 - 엄혜영 에스더 7/11 - 김재익 베네딕도
7/20 - 김은정 마르가리따 7/21 - 신승훈 다니엘

단체 소식
▶2024 캐나다 한인 남성 제 43 차 꾸르실료 주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가기 위한 형제를 위한 꾸르실료 주말 교육의 신청을 받습니다."
* 기간 : 9 월 5 일(목)~9 월 8 일(일)
* 신청 마감: 7 월 28 일 (일)
* 신청 및 문의 : 간사 이정길 테오필로

천교 식사
7,8 월은 음식 유지의 어려움때문에 구역식사가 없습니다.
각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27 명)			
주일헌금	\$1305	교무금	\$170
감사헌금	\$0	성전건립	\$840

삼종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十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람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7 월 본당 세례 축일자(31 명)
7/ 1 아론(송찬) 에스더(김건희), 에스텔(홍연아)
7/ 3 토마스(민천식, 최명근, 이정환)
7/ 5 대건 안드레아(이천우, 이건희, 오유성)
7/ 7 베테딕토 11 세(조은혁)
7/ 11 베네딕토(김영웅, 정철)
7/ 12 베로니카(민경희, 최아현)
7/ 21 다니엘(김민후, 유서진, 이승익, 이승규)
루시아(김순예), 뽀락세다(강영순)
7/ 22 마리아 막달레나(신미숙)
7/ 24 크리스티나(석효정)
7/ 25 제임스(제임스, 장대용, 조원형)
야고보(조광학)
7/ 26 안나(김갑진, 이교성, 배혜란. 최다인)
7/ 29 베아트리카(조하늬)

전례봉사자

날짜	해설	복사	독서자	봉헌자
7/28	권희진 요안나	유세진 라파엘 유서진 다니엘	1 독서: 이인선 켄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김의수 안드레아 박혜영 수산나
8/ 4	임연신 비아	최다혜 플로라 최다희 보나	1 독서: 김한욱 에릭 2 독서: 강지원 요안나	이인선 켄마 박규혜 카타리나
8/11	박혜영 수산나	최두원 스테파노 이준규 안드레아	1 독서: 권희진 요안나 2 독서: 임연신 비아	김한욱 에릭 김영미 스틸라

그리스도인의 시각(視角)

박성태 마태오 신부
반여성당 주임

예수님께서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군중은 참으로 많은데 그들이 먹을 빵은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굶주림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은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 방법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視角)이 완전히 다릅니다.

필립보가 먼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요한 6,7) 이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에 안타깝지만 각자도생하도록 하여 도덕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나자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안드레아가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요한 6,9)라고 말하지만 역시 체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안드레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체념해 버렸던 바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때로는 문제 해결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예상될 때는 과감한 포기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현실 외면에 따른 자기 위안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굶주리는 저 군중들에 대한 ‘가엾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물질적인 여유가 많아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가엾은 마음’을 항상 간직하셨고 그 마음으로 굶주린 군중을 끝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요한 6,11)

예수님께서서는 늘 감사하고 기도하며 가엾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視角)이어야 합니다.



대 철 주 보

<http://cafe.daum.net/stpeteryu>

한대와 경청의 해

2024 사목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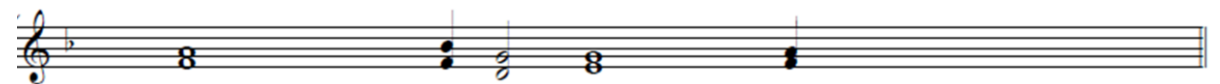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



연중 17 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2024. 7. 28)

제 1 독서 열왕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4,42-44

화답송 시편 145(144), 10-11, 15-16, 17-18(© 16 참조)



후렴.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 1-6

복음 환호송 루카 7, 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알렐루야

복 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 1-15